부모교육의 유학적 적용

-『胎敎新記』를 중심으로 -

김경미*

〈차 례〉

1. 머리말
2. 유학적 부모교육에서 바라본『胎敎新記』
3.『胎敎新記』의 유학적 부모교육의 근본목적 : 修身
4.『胎敎新記』의 유학적 부모교육의 교육방법 : 正心과 謹[삼감]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胎敎新記』를 통해 한국의 전통태교가 교육의 최초 단계로 유학적 부모교육의 한 단계이며, 유학의 원리 하에 실천된 교육활동으로 유학적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이사주당이 저술한『胎敎新記』의 가치와 의미를 유학적 부모교육 관점에서 논하였다. 전체의 내용을 유학적 부모교육에서의 태교의 가치, 태교의 근본 목적, 태교의 방법으로 나누고『胎敎新記』를 유학의 근본원리인 誠意, 正心, 修身과 연결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연구과정

하여 논의하였다.

태교는 자신의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말하며, 善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태교의 교육목적은 유학에서 추구하는 修身으로 나아가는 교육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유학에서는 誠意와 正心의 교육방법을 통해 修身이라는 근본목적에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胎敎新記』에서는 修身의 교육방법으로 正心과 謹[삼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부모교육, 『胎敎新記』, 修身, 正心, 謹[삼감]

1. 머리말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는 서구 교육이론의 형성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부모교육이란 “이미 성인된 사람들이나 예비부모들을 위한 교육으로 자녀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일반교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부모가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활동”[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부모교육의 개념은 자녀교육과 일치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 부모역할 중 많은 부분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훈육하는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

1) 강은주 외, 『영유아 전인발달을 돕는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6.
2)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 『부모교육』, 학지사, 2010.

그러나 부모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보다 '부모됨'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의 성장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모 자신의 내적인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받은 교육과 생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토대로 자녀를 교육한다.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는지는 자녀교육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녀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가치관 확립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바른 자녀교육의 포괄적 교육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녀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적 자질과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있다. 유학적 전통교육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착한 본성을 지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학 사상은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고의 중심에는 유학적 전통교육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修身이 중심이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부모교육을 자녀교육 측면이 아닌 부모자신의 교육적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 되는 첫 단계에 속하는 태교를 부모 수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태교는 '어머니가 배 안의 태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태교는 태아를 교육한다는 기본목적보다 부모, 특히 임신부 수신교육에 목적이 있음을 밝혀 오늘날 부모교육의 첫 단계로서 태교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사주당의 『胎敎新記』 내용을 통해 임신부가 갖추어야 할 修身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수신방법으로 유학의 誠意正心이 『胎敎新記』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실천되고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태교를 태아를 잘 가르치려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태아교육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부모교육이며 '부모되기'교육의 중심에는 부모의 修身이 자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첫 단계인 태교를『胎敎新記』를 통해 유학적 부모교육의 방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유학적 부모교육에서 바라본『胎敎新記』

1) 태교관련 문헌과『胎敎新記』

태교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을 위한 교훈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과거에도 태교는 주로 어머니가 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교에 관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책은 賈誼의『新書』로, 출산 전후에 왕후가 왕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교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책은 전한의 학자 유향의『列女傳』이다.『列女傳』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로 10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편에 걸쳐 어머니와 부인으로서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중「母儀傳」<周室三母>에서는 가장 먼저 태교를 실행한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태교법[3]을 상세히 기록하여 태교의 중요성

3)『列女傳』「母儀傳」: 太妊之性, 端一誠莊, 惟德之行, 及其有娠, 目不視惡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能以胎敎. <태임의 성품은 곧고 성실하여 오직 덕으로써 행동하였다. 태임이 문왕을 임신하였을 때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음악을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녀는 태교를 잘 하였다.>

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전통태교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교 기록은 고려 말 정몽주 어머니 이씨가 쓴 『胎中訓文』이며, 그 외의 태교서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다.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 한씨의 『內訓』, 율곡 이이의 『聖學輯要』, 송시열의 『戒女書』, 이사주당의 『胎敎新記』, 빙허각 이씨의 『閨閤叢書』 등의 저서에서 태교의 내용을 다루어 싣고 있다.

중국의 태교 관련 문헌에서 보이는 공통된 태교 방법을 살펴보면, 태어날 아이의 품성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신부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단속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태교 문헌들도 임신부가 일상에서 조심하고 삼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修身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후기 이사주당(李師朱堂)[1739년-1821년]은 자신의 태교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태교의 중요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4] 그것이 바로 『胎敎新記』이다. 『胎敎新記』는 대부분의 태교 문헌들이 책의 일부분에서 태교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태교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천까지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단일 태교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사주당은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朱熹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의 당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학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으며, 유학 지식과 소양 또한 풍부하였다. 『胎敎新記』는 유학적 지식과 소양을 근저에 두고 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저술 된 것으로 몸과 마음의 수신교육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태교 문헌이라 할 수 있다.

---

4) 김병희, 「전통태교의 현대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41, 2010, pp.69-92.

2) 유학적 부모교육과『胎敎新記』

부모교육의 실질적인 목적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에 있다. 전통사회나 현대사회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부모교육에 소홀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부모교육이 자녀의 진로, 진학과 출세, 나아가서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부모교육의 목적이 자신을 다스리는 수신에 있기보다 지식교육과 배금주의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유학적 적용을 통해 바라본 전통사회 부모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현대사회 부모가 자녀의 지식과 능력발달을 위한 목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았다면, 전통사회에서 부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조심하는 修身에 매진하였다. 修身은 유학의 교육목표이기도 하다.

> 하늘이 命하신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름을 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敎라 한다.[5]

天命之謂性이란 천명과 성을 동일시한 표현으로, '천명≒성'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하늘이 명한 天命과 性은 같은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仁義禮智의 性은 하늘의 뜻이며 항상 善한 것이다. 따라서 性을 실현하여 산다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善하게 사는 것, 인간다운 삶을 의미한다. 率性之謂道에서 率性≒道이다. 道란

5)『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반드시 해야 하는 도리를 의미한다. 善한 性을 그대로 실현하여 사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인간의 性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性이 밖으로 드러나 情으로 표현되면, 性의 길을 따르는 착한 情과 性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한 情으로 나뉜다. 性의 길을 따라 표현되는 情을 道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道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道와 非道는 性을 따르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非道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修道가 요구된다. 修道之謂敎에서 修道≒敎이다. 도를 닦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서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性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서의 가르침을 말한다. 하늘의 命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이런 논법으로 살펴볼 때, 胎敎는 胎修道로 胎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명의 性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胎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胎는 어머니 배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胎를 道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임신부이다. 胎의 본성의 善함을 위해 임신부는 항상 자신의 본성이 善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임신부의 修身으로 가능하다.

> 남해의 제왕이 있어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제왕이 있어 홀이라고 하며, 중앙의 제왕이 있어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지극이 잘 대접하였다. 숙과 홀이 혼돈의 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의하기를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그 분 만이 없다. 시험 삼아 뚫어주자.' 하루에 구멍하나씩 뚫더니 7일째에 혼돈이 죽었다.6)

---

6)『莊子』「內篇」應帝王 : 南海之帝爲儵,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渾沌. 儵

혼돈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로 되어 있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로 혼란에 빠져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莊子』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은 태어나면서 하늘로 부터 받은 性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이며 모습이다.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의식, 감각, 구별, 분별을 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식, 감각, 구별, 분별을 통해 본래의 참된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혼돈이 죽었다고 표현하였다. 즉 죽었다는 표현은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性, 善함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무릇 胎란 천지의 시발이오, 음양의 근원이며 조화의 원동력이고 만물을 담는 그릇이니 太始의 음양이 和하고 혼돈하여 구멍이 뚫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妙氣가 발휘되니 은연히 돕는 공은 사람에게 있느니라.[7]

> 무릇 나무는 가을에 비로소 胎가 생기기 때문에 비록 우거지고 무성하더라도 오히려 곧게 뻗어가는 성품이 있고, 쇠는 봄에 배태되기 때문에 비록 굳세고 날카로우나 오히려 녹아 흘러 엉키는 성품이 있으니, 胎는 성품의 근본이요, 그 형상을 한 번 이룬 다음에(태어난 후에) 가르치는 것은 끝이 되느니라.[8]

與忽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渾沌之德, 曰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7) 『胎教新記』「胎教新記序」: 夫胎者, 天地之始, 陰陽之祖, 造化之橐籥, 萬物之權輿, 太始氤氳, 渾沌之竅未鑿, 妙氣發揮, 幽贊之功在人.
*『胎教新記』의 해석은 배병철(성보사 『胎教新記』)과 이연재(안티쿠스 『胎教新記』), 최삼섭·박찬국(성보사 『역주胎教新記』)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번역 등은 일부 수정하였다. 이후의 『胎教新記』내용의 해석도 이와 같다.

8) 『胎教新記』 제2장 : 夫木胎乎秋, 雖蕃廡, 猶有挺直之性, 金胎乎春, 雖勍利, 猶有流合之性, 胎也者, 性之本也, 一成其形而教之者 末也.

> 배속의 자식과 어미는 혈맥이 이어져 있어서 어미가 숨 쉼에 따라 아이도 움직이므로 기쁘며 성내는 것이 자식의 성품이 되며, 보고 듣는 것이 자식의 기운이 되며, 마시며 먹는 것이 자식의 살이 되나니, 어미가 어찌 이를 삼가지 않으리오.[9]

『胎敎新記』에서도 구멍이 뚫리지 않은 혼돈의 상태인 胎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胎는 아직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구별할 줄 모르는, 본래의 性을 간직한 상태이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전부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봄에 싹이 트기는 하지만 나무의 눈은 이미 가을부터 생겨난 것이어서 가을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곧게 뻗어가는 성품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태교는 胎가 아직 지각하지 않은 혼돈의 상태일 때 성품의 근본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태교는 가르침의 근본으로 태어난 후 아이의 성품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태어난 다음에 가르쳐 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말단이라고 한 것이다.

임신부와 태아는 혈맥으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기쁘고 성내는 것들은 모두 태아의 성품과 기운과 살이 된다. 그러므로 태아의 바른 성품을 위해서는 임신부가 자신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胎敎新記』에서 이사주당이 강조한 태교의 기본 원칙이며, 그 바탕에는 부모, 특히 임신부가 修身에 힘써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修身은 유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부모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

9) 『胎敎新記』 제4장 : 服子之母, 血脈牽連, 呼吸隨動, 其所喜怒爲子之性情, 其所視聽, 爲子之氣候, 其所飮食, 爲子之肌膚, 爲母者曷不謹哉.

3.『胎敎新記』의 유학적 부모교육의 근본목적 : 修身

유학 경전인 四書 중『大學』은 유학의 전체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책이다. 格物致知에서 시작하여 修身齊家를 거치고 治國平天下로 마치는 이 책은 유학의 근본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팔조목을 제시하고 있다. 팔조목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이며 그 중심에 修身이 자리하고 있다.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은 修身의 내용이며, 齊家, 治國, 平天下는 修身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修身이 되면 齊家, 治國, 平天下는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修身이 되지 않으면 齊家, 治國, 平天下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大學』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학교육의 목표는 修身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이 모두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도 말단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며, 그 두텁게 여겨져야 될 것이 엷게 여겨지고 그 엷게 여겨져야 될 것이 두텁게 여겨지는 경우는 있지 아니하다.10)

나무의 근본은 뿌리이다. 만약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지는 튼실할 수 없다. 근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서 말단이 갖추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修身이다. 수신하지 못하면 근본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단은 당연히 다스려지지 않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얻지 못한다.

『胎敎新記』에서 이사주당은 유학의 本末 구조를 적용하여 어머니를 本으로 그리고 배속의 자식을 末로 보고 있다.

---

10)『大學』「經一章」: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 어미가 찬 병을 얻으면 아이도 차지고 어미가 더운 병을 얻으면 그 태아도 덥다 하였으니 이런 이치를 알면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 오이가 그 넝쿨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지라 젖으며 마르며 설며 익음이 바로 그 뿌리의 물대줌과 물대주지 아니함에 달려있으니 어미가 조섭을 못하고도 능히 태를 길러내고, 태를 잘 기르는 법을 얻지 못하고도 자식이 능히 재주 있고 오래 사는 자를 일찍이 보지 못하였노라.[11]

오이넝쿨에 달려있는 오이가 젖고 마르고 설고 익는 것은 뿌리에 물을 대주느냐 물을 대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뿌리가 本이면 오이는 末이다. 뿌리가 마르면 오이도 마르듯, 임신부가 제대로 태를 길러내지 못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임신부가 근본이고 태아는 말단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작용이 말단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태아의 몸과 더불어 성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胎敎新記』에서는 임신부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修身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날씨가 정상이 아닌 때라도 편안하게 쉬어서는 안 되며, 헛된 욕심이 싹트게 해서도 안 되며, 사기가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을 낳는 아버지의 도리니라.[12]

『胎敎新記』에서는 아버지의 修身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스승의 십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 열 달 기름이 아비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13] 스승의 십년 가르침보다 어미의 열 달 기름이 중요하고, 어미의 열 달

---

11) 『胎敎新記』 제8장 : 醫人有言曰, 母得寒兒俱寒, 母得熱兒俱熱, 知此理也, 子之在母, 猶瓜之在蔓, 潤燥生熟, 乃其根之灌若不灌也, 吾未見母身不攝而胎能養, 胎不得養而子能才且壽者也.

12) 『胎敎新記』 제1장 : 陰陽不調, 天氣失常, 不敢宴息, 使虛慾, 不萌于心, 邪氣不設于體, 以生其子者, 父之道也.

13) 『胎敎新記』 제1장 : 師敎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

기름보다 아비의 하루 낳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낳는 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인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조심하고 몸과 마음을 삼가야 한다.[14] 만약 자녀를 가지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자식이 기혈이 막혀서 지각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니 아버지의 허물이다.”[15]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헛된 욕심이 싹트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고, 예를 갖추어 몸가짐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도리이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修身은 임신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었다.

> 인성의 성품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나니 기질이 한 쪽으로 치우침이 심하면 점점 성품을 가리게 되나니 부모는 낳고 기름에 그 삼가지 아니하랴.[16]

부모는 태아의 성품을 이루는 주체이다. 따라서 태아의 성품이 바르지 않는 것은 부모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修身을 통해 기질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善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17] 부모는 낳고 기르는 모든 시기에 항상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

14) 김미라·이미림, 「『胎敎新記』를 통한 마음치유의 방법론 연구」,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64, 2016, pp311-343.

15) 『胎敎新記』 제1장 : 氣血凝滯, 知覺不粹, 父之過也.

16) 『胎敎新記』 제1장 : 人生之性, 本於天, 氣質成於父母, 氣質偏勝, 馴至于蔽性, 父母生育, 其不謹諸.

17)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胎敎新記』의 태교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50, 2005, pp.475-502.

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생각하지 말며, 마음 지혜 온 몸까지 모두 정도에 따라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이다.[18]

안연이 仁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극복하여 禮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 되는 것이니 오늘날 하루 자기를 극복하여 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仁으로 돌아간다. 仁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니 남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19] 공자의 대답을 듣고 안연이 仁을 행하기 위한 세목을 물으니 공자는 네 가지 '하지 말 것'을 들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네 가지 세목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 것'이다.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性은 善한 것으로 나를 사랑으로 살리며, 남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仁이란 人과 二로 구성된 글자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 나의 마음과 남의 마음의 서로 같은 부분은 마음의 근원을 이루는 性이기 때문에 仁은 곧 性이며 특히 性의 작용을 仁으로 표현한다.[20] 그러므로 仁은 남과 구별되지 않는 혼돈의 상태이며 본래의 善한 마음상태로 修身을 통해 이룰 수 있다.

『胎敎新記』에서는 네 가지 세목 외에 '예가 아니면 생각하지 말 것'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네 가지 방법은 밖으로 드러나는 禮를 통해 몸을 제어하는 것이고, '예가 아

18) 『胎敎新記』 제1장 :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非禮勿思, 使心知百體, 皆由順正, 以育其子者, 母之道也.

19) 『論語』「顔淵」: 顔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20) 李基東, 『大學·中庸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니면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은 생각을 통해 마음까지 제어하는 것이다. 임신부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항상 禮에 맞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 修身을 통해 이룰 수 있다.

4. 『胎敎新記』의 유학적 부모교육의 교육방법 : 正心과 謹[삼감]

『大學』에서는 修身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誠意와 正心을 제안한다.

>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며 좋은 빛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족하는 것이라 일컫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21]

'誠意'의 誠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意는 마음이 움직였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 마음의 근원은 性이다. 근원인 性은 외부 사물이나 환경 등에 의하여 움직이면 情으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性에서 情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직 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를 意라고 한다. 性은 항상 善하지만 情은 善할 수도 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고픈 내 앞에 빵이 하나 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집어들고 먹으려 하는데 바로 앞에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이 내 빵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性은 나를 살리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남을 살

21) 『大學』「傳六章」: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 必愼其獨也.

리는 善한 마음이다. 따라서 性이 情으로 구체화될 때 '배고픈 사람과 빵을 나누어 먹자'라고 마음먹으면 善한 情이 되지만, '저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 내 배가 차지 않는다'하고 내 배고픔만 챙기게 되면 不善한 情이 되는 것이다. 善과 不善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 意가 性을 따르는 善한 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誠意이며, 자신의 본성을 속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하는 것은, 몸이란 성내거나 노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한다.22)

>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잡는데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23)

誠意를 통해 善한 情으로 나타나는 마음을 正心이라 한다. 마음은 몸을 통제한다. 따라서 마음이 성내거나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正心을 얻기 힘들다. 또한 正心하지 못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 修身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본성을 성실하게 이루어 그 마음을 바로잡는데 있다.

『胎敎新記』에서는 誠意에서 正心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謹, 삼감

---

22) 『大學』「傳七章」: 所謂修身, 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

23) 『大學』「傳七章」: 心在不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修身, 在正其心.

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감[謹]은 임신부로 하여금 '바른 마음(正心)'을 갖도록 하는 교육방법으로 유학에서 군자의 행동인 愼獨의 '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24]

> 태교를 알지 못하면 어미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니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법이 있으니 그것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며, 앉고 서는 것을 조심하며, 자고 먹는 것을 조심하되, 잡념이 없어야 가능하다. 잡념이 없이 한 일이 넉넉하게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오로지 삼가 할 뿐이니라.[25]

태교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正心에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謹[삼감]이다. 謹이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고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이다. 태아를 위해 임신부는 보고 들을 때에도 삼가하고, 앉고 설 때에도 삼가하며, 잠자고 먹을 때에도 삼가 하고, 잡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고 먹고 앉고 서는 것을 삼가는 것은 임신부의 몸을 조심하여 태아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보고 듣는 것을 삼가는 것은 보고 들음으로써 임신부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마음을 조심하여 正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면 謹[삼감]의 과정을 몸의 謹[삼감]과 마음의 謹[삼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마음 謹[삼감]에 대해 『胎敎新記』에서는 임신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기술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부는 귀로 듣는 것을 삼가야 한다. 분한 일을 들으면 화가 나고, 흉한 일을 들으면 두려워지며, 난처한 일을 들으면 근심되고

---

24) 김영철, 「『胎敎新記』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17, 2005, pp.133-156.

25) 『胎敎新記』 제5장 : 不知胎敎, 不足以爲人母, 必也正心乎. 正心有術, 謹其見聞, 謹其坐立, 謹其寢食, 無褻焉則可矣. 無褻之功, 裕能正心, 猶在謹之而已.

급한 일을 들으면 놀란다.[26] 그리고 요란한 음악과 노래,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 여자들의 욕지거리 및 술주정뱅이의 욕설과 우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27] 한다. 귀를 통해 듣는 것은 마음을 쉽게 움직여 감정이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임신부 스스로 이를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항상 착한 사람을 두거나, 기쁘고 모범이 되는 말을 항상 듣게 하여 좋지 않은 不正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힘쓰거나[28] 시를 낭송하고 경서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거문고나 비파를 타는[29] 소리를 들어 항상 마음이 善함을 잃지 않도록 한다.

임신부는 눈으로 보는 것을 삼가야 한다. 백옥과 공작새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건, 성현의 훈계하신 글과 신선이 허리에 찬 관대의 그림을 보게[30] 하고, 광대나 난쟁이 원숭이류와, 희롱하고 다투는 형상과, 형벌이며 이상한 것을 두르거나 동여매어 죽이거나 해롭게 하는 일과 병신과 몹쓸병있는 사람과 무지개와 벼락과 번개와 일식 월식, 별똥이 떨어지는 것, 홍수로 물이 범람하는 것,

---

26) 『胎敎新記』 제4장 : 不敢以忿事聞, 恐其怒也, 不敢以凶事聞, 恐其懼也, 不敢以難事聞, 恐其憂也, 不敢以急事聞, 恐其驚也. <감히 분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안 되니 임신부가 화를 낼까 두려워함이고, 감히 흉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임신부가 두려워할까 염려함이며, 감히 난처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근심할까 열려함이고, 감히 급한 일을 들려주지 않는 것은 인심부가 놀랠까 염려함이다.>

27) 『胎敎新記』 제4장 : 不可聞淫樂淫唱, 市井喧譁, 婦人誶罵, 及凡醉酗忿辱倀哭之聲.

28) 『胎敎新記』 제4장 : 姙婦之旁, 常有善人, 輔其起居, 怡其心志, 使可師之言, 可法之事, 不間于耳, 然後 惰慢邪僻之心, 無自生焉, 待姙婦. <임신부의 곁에는 항상 착한 사람이 있게 하여 임신부의 기거를 돕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범이 될 만한 말씀이나 본받을 만한 일을 귀에서 끊이지 않게 한 연후에 게으르고 사기로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임부를 대하는 것이다.>

29) 『胎敎新記』 제4장 : 誦詩說書, 不則彈琴瑟.

30) 『胎敎新記』 제4장 : 白璧孔雀華美之物, 聖賢訓戒之書, 神仙冠珮之畵.

불이 타오르는 것, 나무가 부러지는 것, 집이 무너지는 것, 짐승들의 음란한 짓과 병이 들어 상한 것, 더럽고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지 않도록[31] 한다. 눈으로 보는 것도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임신부는 항상 좋은 것만 보도록 해야 한다.

임신부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분하여도 모진 소리를 하지 않고, 성나도 못쓸 말을 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더불어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나온 데가 분명치 않은 뿌리 없는 말을 전하지 않아야[32] 한다. 말은 자신의 마음 속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순간의 감정에 쏠려 말하는 것들은 후회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눈, 코, 입은 감각기관이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감각기관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임신부는 눈, 코, 입을 통한 감각에 주의하고 삼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왕의 어머니 태임도 문왕을 잉태하시고 눈으로 현란한 것을 보지 않고 귀로 음란한 것은 듣지 않고 입으로 불손한 말은 하지 않은[33] 것이다.

> 자식은 혈(血)을 근본으로 이루어지고, 혈은 마음에 의해 움직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 역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느니라.[34]

---

31) 『胎敎新記』 제4장 : 不可見倡優侏儒猿猴之類, 戲謔爭鬪之狀, 刑罰曳縛殺害之事, 殘形惡疾之人, 虹霓震電, 日月薄蝕, 星隕彗孛, 水漲火焚, 木折屋崩, 禽獸淫泆病傷, 及汚穢可惡之蟲.

32) 『胎敎新記』 제4장 : 忿無勵聲, 怒無惡言,···與人不戲言, 不親詈婢僕,···言無根勿傳.

33) 『胎敎新記』 제9장 : 太任娠文王,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주나라 시조 문왕의 어머니 태임께서 문왕을 잉태하시고는 눈으로 邪氣로운 색을 보지 않으시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며, 입으로는 불손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34) 『胎敎新記』 제4장 : 子由血成而血因心動, 其心不正, 子之成亦不正.

임신부와 태아는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임신부가 외부 사물을 보고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환경을 謹[삼가]하여 임신부는 正心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보고 듣고 싶어도 하지 않고, 보고 듣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는 노력과 끊임없는 정성이 필요하다. 임신부가 행하는 謹[삼가]의 행동이 바로 노력과 정성에 해당한다. 태양이 항상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끊이지 않는 정성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임신부가 노력과 정성으로 마음을 삼가는 것은 修身을 이루는 방법이다.

『胎敎新記』에서는 임신부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기술하여 몸의 謹[삼감]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몸의 謹[삼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나 크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거동작과 음식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임신부는 단정하게 앉아야 한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앉지 말고, 벽에 기대어 앉지 말며, 다리를 쭉 뻗고 앉지 말고, 무릎을 세워 웅크리고 앉지 말며, 마루 끝에 앉지 말아야 한다.[35]

> 임신부는 혹 서 있거나 혹 걸어 다닐 때에 한 쪽 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기둥에 기대지 말고, 위태로운 것을 밟지 말며, 비탈지고 좁은 길로 다니지 말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서서 올라가며, 계단을 내려 갈 때는 반드시 앉아서 내려가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내달리지 말며, 도랑을 건널 때도 뛰어 건너지 말아야 한다.[36]

> 잘 때 엎드려 자지 말며, 누워 있을 때에는 위를 똑바로 쳐다보지

35)『胎敎新記』제4장 : 妊婦端坐, 無側載, 無恃壁, 無箕無踞, 無邊堂.

36)『胎敎新記』제4장 : 妊婦或立或行, 無任一足, 無倚柱, 無履危, 不由仄逕, 升必立, 降必坐, 勿急趨, 勿躍過.

말며, 몸을 구부리고 자지 말며, 문으로 머리를 두지 말며, 이불을 덮지 않고 몸을 드러내고 눕지 말며, 몹시 춥거나 크게 덥거든 낮잠을 자지 말며, 배불리 먹고 자지 말아야 한다.37)

위의 내용은 앉고 서고 눕는 일상생활에서 임신부의 기거동작의 삼감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임신부는 일반인보다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는다. 민첩성도 떨어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느리다. 따라서 앉거나 서거나 누울 때는 위태로운 행동이나 행위를 삼가 하여 몸을 돌보며, 항상 보온에 힘쓰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에 힘쓸 것을 권유하였다.

벌레 먹은 것도 먹지 아니하며 썩어 떨어진 것도 먹지 않으며 익지 않은 풀의 열매와 푸성귀를 먹지 아니하며 음식 찬 것도 먹지 아니하며 물커지고 쉰 것을 먹지 않으며 생선 상한 것과 육고기 썩은 것도 먹지 아니하며 빛깔이 좋지 않은 것도 먹지 아니하며, 냄새가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으며, 잘못 삶았거든 먹지 아니하며, 때 아닌 것을 먹지 아니한다.38)

임신부가 먹는 것은 태아의 건강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임신부는 항상 태아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벌레 먹거나 썩거나 익지 않은 것, 쉰 것 등은 건강에 해로우며, 찬 음식은 몸을 차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 때에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임신부가 먹는 음식은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태아의

37)『胎敎新記』 제4장 : 寢無伏, 臥毋尸, 身毋曲, 無當隙, 無露臥, 大寒大暑, 毋晝寢, 毋飽食而寢.

38)『胎敎新記』 제4장 : 蟲蝕不食, 腐壞不食, 瓜菰生菜不食, 飮食寒冷不食, 食饐而餲魚餧而肉敗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살과 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항상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하게 거처하여 온화하고 알맞게 하며 머리와 몸가짐과 입과 눈의 단정함이 하나와 같이 할 것이니라.[39]

몸은 마음에, 마음은 몸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부는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이다. 집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집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몇 년 못가 흉가가 될 것이다. 집보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듯, 몸보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없는 몸은 마치 흉가와 같아서 가치가 없다. 우리가 몸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는 마음의 謹[삼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胎敎新記』는 임신부의 修身을 위해 誠意에서 正心으로 진행되는 실천방법으로 謹[삼감]을 설정하고 있다. 임신부는 본성에 기반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자기절제 방식인 謹[삼감]을 통해 修身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것은 유학에서 인간의 사적인 욕망인 人欲을 禮로써 통제하고 愼을 통해 수신에 이르는 방법과 같다. 이사주당은 『胎敎新記』를 통해 태교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목표를 '修身'으로 설정하고 삼감[謹]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 함양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

39) 『胎敎新記』 제4장 : 常宜淸心靜處, 溫和適中, 頭身口目, 端正若一.

5. 맺음말

조선시대 이후 활발히 진행된 전통태교는 유학사상의 기반 위에서 발달되고 실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태교가 추구하였던 교육방법은 인격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유학적 修身의 방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인격을 수양하는 儒者가 학문하는 목적과, 태교를 실천하는 부모의 교육목적은 서로 같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삼감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修身이다. 그러므로 태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태아를 잘 가르치는 것에 있기 보다는, '부모되기'에 도전하는 부모의 修身에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이사주당은 자신의 태교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태교의 중요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술하였다. 그것이 바로『胎敎新記』이다.『胎敎新記』는 조선후기 태교 전문서로 태교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천까지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단일 태교서이다.『胎敎新記』는 유학의 교육목적과 실천방법을 태교의 교육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책의 내용과 체계도 유학의 교육목적과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胎敎新記』는 태아가 도덕적 성품을 가지기 위한 선행조건을 부모, 그 중에서도 임신부의 修身에 두고 있다. 그리고 修身을 위한 실천방법을 謹[삼감]으로 보고, 謹[삼감]의 실천을 몸의 謹[삼감]과 마음의 謹[삼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謹[삼감]은 유학의 愼과 같은 의미이다.

임신부는 태아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태아를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학적으로 잘 기르는 것 뿐 아니라, 태아의 善한 성품을 기르는 마음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태아의 善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마음교육을 위해 임신부는 외부 영향을 잘 조절하고 자신의 善한 성품이 태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신부는 자신의 善한 본래 마음을 지키

기 위해 자신이 보고 듣고 마시고 먹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뿐 아니라, 기쁘고 성내는 여러 가지의 감정까지도 절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40] 일상생활에서 신중하게 삼가고 노력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임신부뿐만 아니라 아버지 될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신중하고 삼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는 아이를 가지고 낳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헛된 욕심이 싹트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고, 예를 갖추어 몸가짐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 어머니가 되어서도 胎를 기르지 않는 사람은 태교를 듣지 못함이요,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힘쓰는 데서 이루어지고 한계를 짓는데서 무너진다. 어찌 힘써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어찌 포기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나니, 빈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오, 스스로 포기하면 무너지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쉬운 일은 없는 것이다.[41]

세상의 모든 일이 힘써 하려고 하면 이룰 수 있고 그만두려고 하면 그릇되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힘써 태교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부모는 항상 삼가고 신중한 자세로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善한 본성을 지키고 人欲을 절제하려는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행해야 한다.

---

40) 김미라・이미림, 「『胎教新記』를 통한 마음치유의 방법론 연구」,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64, 2016, pp.311-343.

41) 『胎教新記』 제5장 : 爲母而不養胎者, 未聞胎教也, 聞而不行者晝也. 天下之物, 成於强, 隳於晝, 豈有强而不成之物也, 豈有晝而不隳之物也. 强之, 斯成矣, 下愚無難事矣, 晝之, 斯隳矣, 上智無易事矣.

태교는 부모의 修身에 본래 목적이 있다. 『胎敎新記』는 부모의 修身이 부모교육의 본래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謹[삼감]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修身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 졌던 유학교육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유학적 적용을 통해, 진정한 부모교육은 자녀교육을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修身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大學』
『中庸』
『論語』
『莊子』
『列女傳』
『胎敎新記』

2. 논문

권진주, 「율곡의 저술에 나타난 자녀교육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유아교육연구』16, 2014, pp.169 - 198.
김미라 · 이미림, 「『胎敎新記』를 통한 마음치유의 방법론 연구」,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64, 2016, pp311-343.
김병희, 「전통태교의 현대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41, 2010, pp69-92.
김영철, 「『胎敎新記』에 나타난 '존심'과 '정심'의 교육적 의미」,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17, 2005, pp133-156.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胎敎新記』의 태교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50, 2005, pp. 475-502.

장정호, 「한·중 전통 태교론 비교 연구」,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18, 2008, pp.59-83.

3. 단행본

강은주 외, 『영유아 전인발달을 돕는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6.
배병철 편저, 『胎教新記』, 성보사, 2005.
성백효,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3.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列女傳』: 중국 고대의 106여인 이야기, 예문서원, 1996.
李基東, 『大學·中庸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李基東, 『論語 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 『부모교육』, 학지사, 2010.
이연재 옮김, 『胎教新記』, 안티쿠스, 2014.
최삼섭·박찬국 역해, 『역주 胎教新記』, 성보사, 2002.

(투고일: 2018. 1. 30.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김경미
소속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연구과정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아이파크분당 101동 1201호
전자우편 : kyoungmeekim@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arental Education to Confucianism

-A Study on the『Taegyosingi(胎教新記)』-

Kim, kyoung-mee

This paper emphasizes that Korean traditional prenatal education is the first stage of education and one stage of Confucian parent education, and it is an educational activity conducted with the purpose and method of Confucianism under the principle of Confucianism.

Therefore, the value and meaning of『Taegyosingi(胎教新記)』written by Yi-Sajud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discussed by the viewpoint of Confucian parent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whole were divided into the values of prenatal education in Confucian parent educa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prenatal education, and the method of prenatal education. And『Taegyosingi』was discussed connect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onfucianism.

Prenatal education is an educational effort to provide a healthy foundation for your child's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aims at mind education with a good heart. Therefore, the purpose of prenatal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education that goes to the Sushin(修身) that Confucianism pursues. Confucianism tried to go to the basic purpose of the Sushin through the education method of the Seongu i(誠意) and the Jungshim(正心). And『Taegyosingi』suggests Jungshim and Samgam(謹) in a way of the Sushin.

Keyword : parent education,『Taegyosingi(胎教新記)』, Sushin(修身), Jungshim(正心), Samgam(謹)